

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정부, 전기·가스요금 동결 결정...내년 총선 의식 3분기 연속 동결 한전, 45조5000만 적자에 200조 부채...1kWh당 21.1원 인상 그쳐 발전 자회사 6곳에 중간배당 요구...한전채 잔액·적자 줄이기 노력

정부가 사실상 내년 1분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전력이 실감감을 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45조5000만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와 200조에 달하는 부채를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감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 당초 바라봤던 1kWh당 51.6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1.1원만 인상된 상황이다. 당장 지난 9월 취임한 최초의 정치인 출신 CEO인 김동철 한전 사장이 취임사에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가파른 물가상승률 외에도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에 실패한 한전은 적자가 클수록 발행액이 줄어드는 한전채 때문에 발전 자회사 6곳에 이른 중간배당을 요구한 상태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 에너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21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1kWh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지난 2021년 신설된 요금으로 석탄·

천연가스·유류 등 국제 에너지가격을 반영해 국제 정세상 가격 인상·인하요인이 있을 시 매분기 ±5원까지 반영하는 값으로, 올해 4분기 +5원에 이어 내년 1분기도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동기간 내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가스요금도 북극발 한파로 난방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동결할 전망이다. 에너지요금이 동결로 가파르게 잡히면서 그 어느 곳보다 한전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전은 총 부채 약 200조 규모로,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내 에너지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보니 시시때때로 변하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유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까지 누적적자는 45조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초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 인상

해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분기 13.1원, 2분기 8원 인상에 그쳤고 산업용 전력을 제외하면, 3분기와 4분기는 동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3·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이 예상되면서 한전은 한전채 발행에 사활을 건 상태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마저 막히게 되면 회사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라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발행량은 올해 결산실적을 통해 내년 1분기가 끝나는 3월께 결정되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6곳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한전이 중간배당을 요구한 건 이례적이다. 현재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0조 9200억원으로 총 104조 6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전망한 올해 한전 손실 전망치인 6조원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14조 9200억원으로 감소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74조 6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미 한전채 잔액은 80조 1000억에 달하고 있어 한전은 중간배당을 통해 손실액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은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와 한전KDN 등을 상대로 중간배당 목표액을 4조원으로 잡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중간배당 액수는 3조2000억원 수준이다. 한전 자회사들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계 및 중간배당 관련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KPS,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 환경교육' 선도

'그린마인드셋' 프로그램 진행

한전KPS(사장 김흥연)는 생태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그린마인드셋'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그린마인드셋은 한전KPS가 굿네이버스 광주 전남지역본부·전라남도나주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양 및 생태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에 대해 올바른 교육 및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전KPS는 지난 14일 나주 빛가람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전남지역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8곳 등 총 13곳의 학교에서 12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3회 교육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과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 ▲기후위기 ▲에너지 ▲기후경제 ▲자원순환 ▲생태 ▲문화 등 6가지 주제로 나눠 교육이 이뤄졌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전력거래소, 전통시장 ESG 우수 상생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전통시장 내 환경오염 감소 기여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023년 공공기관-전통시장 ESG 우수 상생활동 공모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이 34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주최해 E(환경), S(사회), G(조직)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전력거래소는 전통시장 내 환경오염 감소에 기

여한 점을 인정받아 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력거래소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에 스마트 냉난방기 보급 및 전기사용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 '국민DR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17TOE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21.6tCO2를 감축해 지역 내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또 월곡시장 상인들은 1억2000만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기관 고유사업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역사회의 환경오염 개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동시 지원하고, 전력거래소도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관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사학연금, 올해 운용수익 2조5000억원 달성

기금운용 수익률 1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3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이 11.8%로 집계되었으며, 2조 5034억원의 운용수익을 창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2023년도의 금융시장 고금리 전망을 반영해 작년 29.6%였던 국내채권 비중을 34.0%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2023-2027년) 전략적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군별 수익률 성과를 살펴보면, 주식 부문에서 국내주식은 18.3%, 해외주식 22.1%를 달성했

다. 채권 부문에서는 국내채권 7.9%, 해외채권 8.2%의 성과를 기록했고, 대체투자 수익률은 국내대체 5.3%, 해외대체 4.1%다.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주식과 채권시장이 이례적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여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작년 손실(-1조 8705억원)을 모두 회복(2조 5034억원)하고도 추가 수익(6329억원)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를 통해 수익률 제고와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우수 기관·직원 2개 부문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자' 시상식에 '우수기관', '우수직원' 등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21년 7월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공익민원을 해소했고, 한전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극업무 활성화에 기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부문에서는 한전 감사실 심지은 차장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심 차장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에 기여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식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기관·직원에게 매년 시상되고 있다. 우수기관과 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